

# 은사와 열매 (1)

Gifts and Fruits

마태복음 7:15-2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7월 29일 설교

<sup>15</sup>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sup>16</sup>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sup>17</sup>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sup>18</sup>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sup>19</sup>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sup>20</sup>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sup>21</sup>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sup>22</sup>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sup>23</sup>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도사님, 무술은 언제?

어렸을 때 무협지나 만화 같은 걸 보면 무술을 배우기 위해 높은 산으로 도사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산 높이하고 도사님의 위대함이 비례하기 때문에 일단 높은 산으로 가야 훌륭한 분을 만나지요. 그런데 분명히 무술을 배우러 가는데 실력 좋은 도사님을 찾아가간다 하지 않고 덕이 높은 도사님을 찾아가간다고 합니다. 무술도 말하자면 재주 아십니까? 그런데도 재주 아닌 덕 있는 스승을 찾아가간다 하는데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은 기술도 당연히 최고겠지만 그것보다 덕이 높은 분이라야 된다 하는 걸 작가도 독자도 다 공감한다는 말이겠지요.

도사님을 만나 옆드려 절을 올리면서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름 높으신 도사님이 나를 제자로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야, 나도 몇 년 고생하면 이름을 떨치는 고수가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도사님이 부르시더니 가서 나무를 해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절 도끼질을 해 나무를 해 왔더니 이번에는 장작을 패라 하십니다. 팠지요. 그런 다음 저 아래 계곡에 가서 물을 떠 오라고 큼직한 단지를 하나 주십니다. 가서 물을 떠 왔더니 밥을 지으라 하십니다. 밥을 지었지요. 처음엔 다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똑같은 걸 시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도사님께 여쭙었습니다. 도사님, 무술수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도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 거 물어보려거든 산을 내려가거라. 어떻게 올라온 산인데 그냥 내려갑니까?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이제는 안 시켜도 내가 알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 패고 물 길고 밥을 짓습니다. 마당 청소도 기본이지요. 그러기를 꼭 세 해. 한 몇 달 하면 무술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해가 세 번째 바뀌었는데도 가르쳐 줄 기미도 안 보입니다. 무술을 핑계로 머슴으로 써 먹으려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지요. 혹시나 해 참고 또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하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무술 수업을 준비하도록 해라.

무술은 재주입니다. 훌륭한 스승이니 아마 탁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이 못 가진 걸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무술을 옳은 일에 쓰기보다 나 중심으로 쓰게 되고 그러면 무술은 폭력이 되고 불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전수해주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 하고 장작 패고 물 길고 밥 하고 마당 쓸고, 이런 건 주로 아랫것들이 하는 일입니다. 상전은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젠 더 못 하겠다 싶을 때까지 시켜서 먼저 사람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허드렛일 삼년 해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 고생이라도 시켜서 조금이라도 인격, 곧 사람됨을 갖추어준 다음 그 인격의 토대 위에 기술을 쌓아야 그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게 된다는 말이지요. 기술 전수보다 그렇게 인격 훈련에 더 관심을 쓰는 도사님이니 덕이 높은 도사님이 되겠는데, 그냥 옛날 책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 재주보다 덕

전혜성 박사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이 커네티컷에 계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자녀교육을 잘 했다고 소문난 분입니다. 고광림 박사를 남편으로 여섯 남매를 키웠는데 여섯 모두 하버드, 예일을 졸업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맏아들 하워드 고는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 보스턴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매사추세츠 보건장관을 여섯 해 동안 지낸 바 있고 지금은 미국 보건부 차관보로 정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가운데 그 유명한 해롤드가 있지요. 예일법대 종신교수였다가 예일법대 학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법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방대법원 판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요. 하워드, 해롤드 아래 지인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지인도 예일법대 종신교수입니다. 미국 법대 가운데 최고 중에서도 최고, 한 명만 입학해도 가문의 영광이라 하는 이 학교에서 둘이 종신교수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멋지게 길렀는데 사람들이 전해성 박사를 가만 두었겠습니까? 결국 책을 썼지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니까?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엘리트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정작 저자의 말은 엘리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시요 그랬습니다. 도덕 기준을 높이 설정하고 무엇보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혜성씨가 책에서 즐겨 쓴 문구가 있습니다. “재승덕(才勝德)하면 안 된다”하는 말입니다. 재주가 덕보다 뛰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의 한 충신이 왕에게 간언을 올렸는데 일반 백성도 재주보다 덕을 중시하는데 임금님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고는 “재승덕박” 곧 재주는 뛰어난데 덕은 모자라는 그런 왕이 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전해성씨가 이 말을 쓰는 걸 보면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여섯 자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재주가 차고 넘치다 보니 재주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람됨이 먼저

전혜성 박사도 재주보다 덕이라 했습니다. 높은 산에 계시는 도사님도 알팍한 재주가 아닌 인간 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인격이 비뚤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재주로 저만 챙기고 남 괴롭히고 세상에 손해만 끼치지 않겠습니까? 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으로 무술 배우러 가는 사람이나 전해성 박사 책 사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다른 게 들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재주를 갖추어 보겠다는 거지요. 남은 못 가진 재주, 이를테면 머리가 아주 영리하다거나,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든지, 남을 압도하는 말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돈 버는 재주도 좋겠지요. 스포츠를 하나 잘 해도 되고, 하여간, 뭐든 남보다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 시대, 돈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쓰는 우리 시대에, 돈이 생깁니다. 돈만 생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이 중요한 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자꾸만 재주로 갑니다.

인격도 재주도 거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타고나는 그대로 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 가운데 잘 생긴 외모로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타고나는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걷는 연습도 해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필요하면 성형외과도 가야 되고 하여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머리 좋은 체력 타고 나도 노력해야 공부 잘 하고 땀 흘려야 운동도 잘 합니다.

인격도 훈련해야 됩니다. 인격이 뭐니까? 인격, 성품, 됨됨이, 이게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겠지요? 화를 잘 내면 인격도야가 덜 되었다 하지요. 분노를 잘 참는 건 훌륭한 인격의 출발점입니다. 화가 나도 꼭 참고 말도 참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훌륭한 인격은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챙겨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덕을 갖추면 사람이 따릅니다. 사람을 얻는다 하지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도 생겼습니다.

## 소유냐 존재냐

둘 다 훈련해야 되는 거라면 차이는 뭐니까? 차이는 유대인 사회학자 에릭 프롬의 표현을 빌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세에 물질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물질을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 그렇습니다. 가져서 만족을 얻으려 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대신 가지려고만 하다가 내 존재, 곧 자신의 내면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뭐니까? 생각하는 게 사람이고, 서로 느끼고 나눌 줄 아는 게 사람이고,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가진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가지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니 그 귀한 것들은 다 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때문에 알맹이를 잃어버렸다 해도 됩니다. 내가 가지는 것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게 있지요? 그걸 본질이라 부르는데 나의 나됨, 사람됨, 그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내 인격과 삶으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무시하고 가진 것으로, 집이나 차나 돈이나 옷이나 이런 걸로 뿌듯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더 말씀 안 드려

도 되겠지요.

재주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재주는 어디까지나 내가 가진 것입니다. 소유한 것입니다. 반대로 인격, 덕, 성품, 이걸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덕을 가졌다 하지만 그걸 가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덕, 내 인격, 이게 나 자신이니깐 이게 바로 주체입니다. 재주는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체가 그 재주를 사용합니다. 재주가 뛰어나든 보잘 것 없는 사람됨이 훌륭하면 그 재주를 좋은 일에 쓸 것입니다. 인격을 못 갖추었다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덕이 없다면, 내가 가진 재주 역시,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나쁜 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덕이 재주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주가 있든 없든 덕을 갖춘 사람은 좋게 쓰고 덕이 없는 사람은 나쁘게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열매가 중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인격도 나오고 재주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높은 산에 있는 도사나 전혜성씨처럼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은 어디 나오니까? 열매라는 말씀이 곧 인격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시는데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꿀을 양에게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는 가짜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선지자요 속은 양을 잡아먹는 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인격 곧 됴됨이를 보는 방법입니다.

나무를 가려낼 때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본질입니다. 나뭇가지에 연도 걸리고 신발도 걸리고 새도 앉지만 그걸 보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달리면 그 때는 백 퍼센트 확실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경우에는 행동이 열매입니다. 행동에 사람의 됴됨이가 드러납니다. 행동은 곧 인격이요 인격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의 열매가 있을 때 그런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재주도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지요. 선지자 노릇하는 재주, 귀신을 쫓아내는 재주, 기적을 일으키는 재주입니다. 이런 재주를 성경이 뭐라 부른다 했지요? 예, 은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재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럴 듯하게 전하는 재주입니다. 성령이 주신다고 나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은사를 주시면 성경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을 잘 풀기 위해 다른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재주나 기적을 일으키는 재주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대단한 재주입니다.

그런데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재주가 아무리 입이 딱 벌어지는 대단한 것이라도, 인격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재주도 부렸다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대신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 가지와 엉겅퀴

은사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높은 산으로 무술을 배우러 가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재주가 좋다 안 좋다,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장작 더 패라, 덕을 더 길러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돌로 딱 나누어줍니다. 진짜하고 가짜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에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양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면서 선지자로 위장해 들어와 양을 노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려내어야 되는데 방법은 열매입니다. 이들은 말은 잘 합니다. 심지어 재주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주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 아닙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말을 아무리 매끄럽게 해도,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삶이 바르지 않다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식물 이름을 들어 구분하십니다. 우선 좋은 열매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사랑받는 중요한 과일입니다. 참 선지자한테 기대할 열매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식물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뭇나무와 엉겅퀴입니다. 가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엉겅퀴가 풀인지 나무인지 그건 몰라도 됩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뭇나무와 엉겅퀴가 바로 창세기 삼장에 나오는 식물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결과로 생겨난 식물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씀은 덕이 크다 작다, 수양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자연 상태나 아니면 은혜를 받은 상태냐, 죄나 구원이냐 하는 구분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 찌꺼기 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나무는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나무입니다. 그저 나무가 좀 좋다, 덜 좋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 아무리 고매한 도사를 만나도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덕 아무리 같고 닦아도, 나무가 타락한 상태 그대로의 나무라면 그런 나무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일단 주님을 불러야 되겠지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였던 우리, 열매는 꿈도 못 꾸었던 우리가 포도나 무화과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내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고 우리가 생명이신 주 예수께 달라붙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하십니다. 심각하지요? 우리가 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 가운데도 아닌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되 재주만 가지고 인격은 갖추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은사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갖추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진짜 나무가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 나무가 진짜라면 안 맺으려도 안 맺을 수가 없는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이름으로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왜요? 나무가 아직 가시요, 엉겅퀴니까요. 주님을 주로 믿고 새 영을 얻어야, 새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걸 못 얻었으니 못 가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은사는 가졌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건 다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은사처럼 같고 닦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속일 수도 있는데 열매는 안 됩니다. 은사는 소유입니다. 가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나 자신입니다. 내 본질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건 내 본질입니다.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이 건 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은사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은사는 구원의 증거가 못 됩니다. 선지자가 되어 멋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져도,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내가 같고 닦아 익힌 재주는 될지언정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주 예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나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내 옷이 받는 것 아닙니다. 내 자동차가 받는 것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삶이 곧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제대로 부르면, 거짓이 아니라 참되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생기고 우리는 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우리처럼 형편없는 가지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열매이기만 하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백 퍼센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요한일서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실천하는 조그만 사랑의 행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여, 하고 참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병을 고쳐도,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시면서 내쫓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렵듯이 느끼긴 했습니다. 재주보다 덕이 중요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전혜성씨 책을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덕 자체가 이미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덕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세상 질서를 위해서는 좋겠지요.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덕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니 재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는 덕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전혜성씨 책도 사 보고 하지만 여섯 자녀가 훌륭한 인격자라서 감동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재주를 가져 내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덕을 가진 자는 사람을 얻고 큰 덕을 가지면 천하를 얻는다고 옛 사람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게 한 영혼입니다 (마 16:26). 자연의 덕을 잘 같고 닦아 천하를 얻은 다음 죽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 못 얻어도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은혜,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조금이나마 순종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산 아니라 언덕에도 못 올랐지만, 자녀 잘 길렀다고 책 못 써도, 가시, 엉겅퀴이던 우리를 생명의 나무에 접 붙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오늘도 세상 덕 아닌 순종의 덕을 부지런히 갈고 닦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